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2/17~2025/02/23]

2025.02.24

[로봇] Figure HELIX와 1X Neo Gamma

- 연이어 터지는 휴머노이드 이슈. Figure의 헬릭스 AI, 1X의 네오 감마 공개
- 한국도 국가차원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구축 움직임
- TXR로보틱스 이번주 수요예측 돌입. 나우로보틱스는 증권신고서 제출. 25년 로봇 IPO 시동

[방산] 活況인 방산

- 갑자기 터져나오는 나오는 수주 파이프라인
- 국방 예산 증액과 재정 적자 감소하더라도 무기 확충에 진심으로 나서는 유럽
- 2월 폴란드 K-2, K-9 각각 14대, 8대 도착

[항공] 4Q 노선별 운임 단가

- 수요 좋은 일본 노선의 신규 취항 계속. 대한항공의 고베와 진에어의 이시가키지마
- 대명소노와 예림당의 가격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
- 에어프레미아가 24년 영업이익 409억원 달성. 전년비 120% 증가

[조선] 약재와 호재 속

- USTRI가 중국 선사(1M USD)와 중국산 선박(1.5M USD)에 수수료 부과 검토
- 아직 유럽 선사들의 수주는 한국과 중국 조선소 사이에서 혼돈의 모습
- 미국 LNG 수출 승인 본격. 캐파 증설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추진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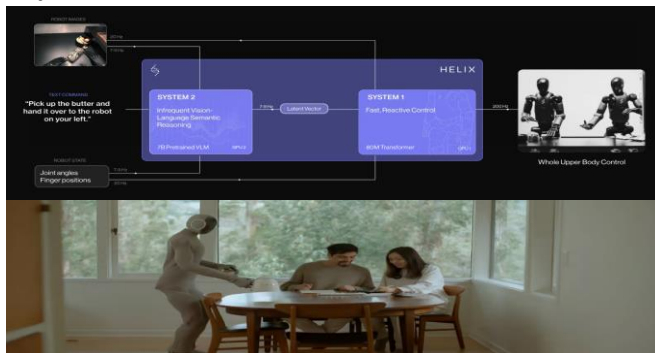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3)

[Figure HELIX와 1X Neo Gamma]

■ 빅테크들에 이어, 이번에는 벤처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관련 업데이트 실시. 지난 주 Figure가 오픈 AI와 협력 해소 이후 AI 모델 HELIX를 공개하고, 1X Technologies는 휴머노이드 신모델 네오 감마를 공개. 공통점은 100HZ 이상의 리얼타임에 준하는 동작 속도 구현 가능한 휴머노이드 AI 모델을 탑재한 점. Figure는 AI 모델의 효율적 구동을 위해 System 1, 2로 구분하여 설계. 인상적이었던 점은 2대의 로봇이 협업하는 모습. 향후 시장에서 궁금해할 점은, 과연 로봇은 어떻게 로봇 간에 소통을 하고 협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1X는 인간친화적인 로봇 디자인 등 다른 기업보다도 더 가정 공간 내 로봇 활용을 염두한 모습이 인상적. 당장 상용화는 여전히 어렵지만, 막대한 투자와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오는 점은 계속해서 주목해야할 부분

Key Chart: HELIX와 Neo Gamma



자료: 각 사

Weekly Keyword

FIGURE HELIX와 1X NEO GAM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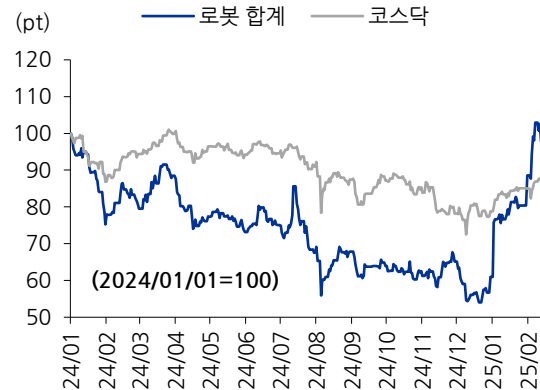
지난 주 빅테크들에 이어,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들이 신모델 및 AI 모델을 공개. 아직 상용화는 멀었지만,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오는 점에 주목 필요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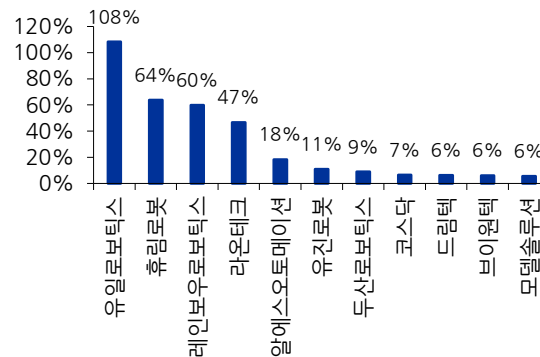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2/17~02/23)

[산업용 로봇]

- 협동로봇 시장 2030년까지 72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나우로보틱스 증권신고서 제출. IPO 본격 돌입

[서비스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테크타카, 물류 자동화 사업 MOU
- 요기요, 강남서 로봇 배달. 배민과 정면 승부 나서
- 한화로보틱스 조리로봇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공급

[기타(정책/부품/SW)]

- 산업부,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발족 추진. 개발 협력
- 로봇 개발사 로브로스, 첫 휴머노이드 '이그리스' 공개
- 에이딘로보틱스, 민트로봇과 로봇암 교시장치 개발 협력
- 씨메스/AJ네트웍스, 지능형 로봇자동화 렌탈 사업 제휴
- TXR로보틱스, 마곡에 AI연구소 신설 계획
- 브이디컴퍼니, 연내 푸두 휴머노이드 D9 출시
- 알에스오토메이션 국산 로봇 핵심부품 해외진출

[Global]

- 피규어AI, 로봇용 지능 '헬릭스' 공개
- 1X, 휴머노이드 네오 감마 공개. 공장 아닌 가정용 타겟
- MS, 로봇용 비전-언어-행동 통합 모델 '마그마' 출시
- 中 앵트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 본격화
- 中 휴머노이드 링바오 카스봇, 누적 200억원 유치
- 지난해 中 산업용 로봇 판매량, 전년대비 3.9% 증가
- 하이얼그룹, 中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스텝' 인수
- 中 로봇 산업계, 1월에만 6,000억원 투자 유치
- 영국 범용 휴머노이드 'HMND 01' 공개



Weekly Keyword

活況인 방산

최근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 흐름과, 국내 방산 기업들의 새로운 수주 파이프라인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기대감 높아지는 중. 방산 업황은 여전히 활황임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21)

[活況인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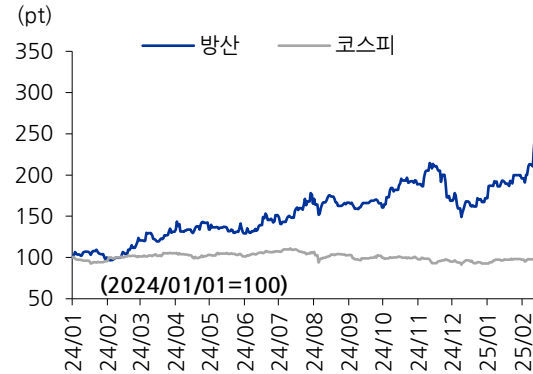
- 4Q24 호실적 이후 중동 IDEX와 유럽 국방력 확충, 그리고 다수의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 급부상으로 방산주 흐름은 매우 긍정적. 최근 보도되거나 알려진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노르웨이 천무, 루마니아 레드백, 인니 K-9, 인니 KAAV, 에스토니아 천무 등), 한국항공우주(UAE 고등훈련기, UAE 중형수송기 공동개발, 사우디 KF-21, 말레이 FA-50 2차, 말레이 KF-21, 인도 KF-21 등), 현대로템(중동 K-2), UG넥스원(중동 L-SAM, UAE ALHEDA 등). 언급된 수주 건들이 단기간에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 필요하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도입 흐름은 활발하고, 여전히 한국산 무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 가능

Key Chart: 부상 중인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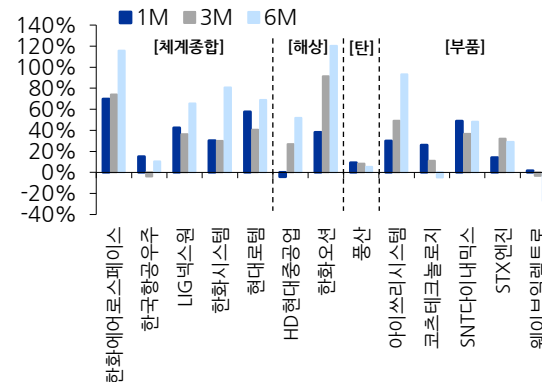
기업명	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노르웨이 천무 - 에스토니아 천무 - 불가리아 K-9 - 인도네시아 K-9 - 인도네시아 KAAV 장갑차 등
한국항공우주	- UAE 훈련기 - 말레이시아 FA-50 2차 - 사우디 KF-21 등
현대로템	중동 K-2ME 등
UG넥스원	- 중동 L-SAM - 중동 ALHEDA(ALTAR) 등

자료: 언론 보도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2/17~02/23)

[수주/계약]

- KAI, UAE 훈련기 사업 재도전. 수송기 공동개발도 본격화
- 인니 해군, 한화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KAAV 관심
- 에스토니아 美 HIMARS 공급 차질. 천무 대체 가능성
- 풍산, 이집트 탄약 공동생산 기대. 군사생산부와 협력 논의
- UAE, 칼리두스와 1.4조원 규모 미사일 공급 계약 체결
- 말레이 공군 총장 방한. FA-50 시승 및 KF-21 시찰
- 인도, 전투기 114대 도입 올해 본격화. KAI 입찰 가능성
- 현대로템 vs 한화에어로. 다목적 무인수송기 경쟁

[기업별 이슈]

- 김동관 한화 부회장, UAE 방산기업 EDGE CEO와 회동
- 한화그룹, UAE 타와준과 방산 품질 강화 협력 MOU
- 한화, 글로벌 UGV기업 에스토니아 밀렘과 MOU
- 한화시스템, 호주에 지휘통제 체계 수출 논의
- UAE 대통령, UG넥스원 부스 방문. 다층방어솔루션 소개
- 현대로템 K2전차 18조 규모 사우디·UAE와 물밑 협상

[기타]

- 폴란드 현지 K-2 14대 및 K-9 8대 추가 현지 도착
- 한·사우디,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K-방산 수출 탄력
- UAE 연합훈련, K2-K9 등 14대 투입. 성공적 마무리
- 공군총장, KF-21 시험비행 첫 탑승
- 국방부, 아프리카 최초로 카메룬과 국방협정 체결

[글로벌]

- 덴마크 국방예산 10조원 추가. 조속한 무기 조달 예고
- 영 노동당, 군사 지출 충족 위해 사회적 삭감 계획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4Q 노선별 운임 단가

4Q 운임은 비수기에 공급 정상화로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미주와 일본 운임 수익성 충분하고, 올해 일부 항공사 공급 감축으로 견조한 운임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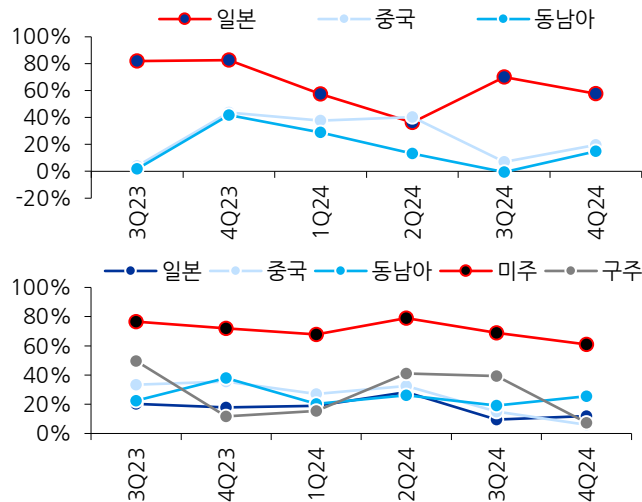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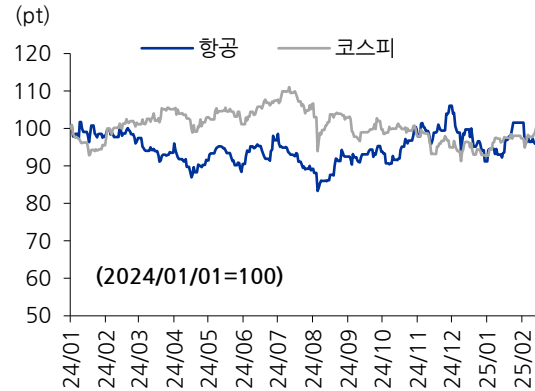
4Q 노선별 운임 단가

- 4Q24 실적 후 확인한 항공사별 4분기 운임 단가는 노선별로 보면 일본이 전년비 5~14% 하락하고, 동남아 9~19%, 미주 6%, 구주 4% 하락한 것으로 파악됨. 공급 정상화 속 운임 또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특정 노선(일본, 미국)의 운임은 코로나 이전 대비 높은 상황. 올해 수요 견조한 가운데, 일부 항공사 공급 감축 운영으로 운임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견조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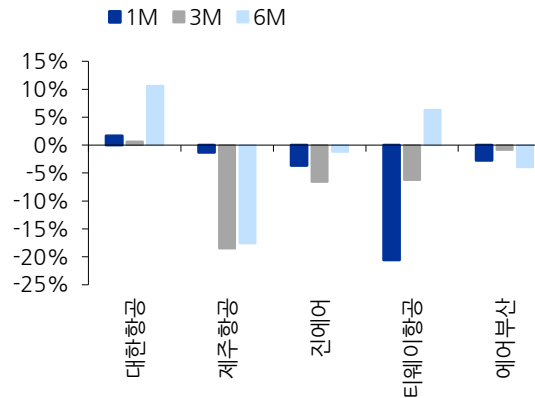
Key Chart: 노선별 운임 비교(vs 18)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항공 주요 뉴스(02/17~02/23)

[여객/화물]

- 진에어, 인천~이시가키지마 신규 취항. 국내 항공사 처음
- 대한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4월 인천~고베 노선 취항
- 에어서울, 인천~요나고 단독노선 주 5회로 증편
- 에어로케이, 이바라키 공항 5월 신규 취항 검토중
- 일본 피치항공 김포발 오사카/나고야 신규 취항
- 하나투어, 일본 소도시를 찾는 여행객이 4배 이상 증가

[기업별 이슈]

- 대명, 티웨이와 가격 협상 타결 임박, 홀딩스 인수 쟁점
- 아시아나, 통합 전 마일리지 소진 위해 제주 1.3만석 공급
- 통합 LCC 출범 속도, 진에어 중심 상호 직원우대 협약
- 이스타항공, 기재 도입 위해 SG PE 통해 300억원 수혈
- 에어프레미아, 영업이익 409억원. 전년비 120% 증가
- 에어프레미아, 롤스로이스 예비 엔진 1기 도입
- 에어프레미아, 기재 도입 및 정비 이슈로 무급휴직 신청
- 에어로케이항공 A320 7호기 도입 완료
- 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 파라타항공 이르면 8월 취항. 운항 증명 획득이 관건

[기타]

- 국토부, 안전 강화 위해 가동률 감축 주문. 운임 인상 가능성

[글로벌]

- 비엠펙항공, 에어라인레이팅스 세계 최고의 LCC 선정
- 메사우스웨스트, 사상 첫 감원. 직원 1,750명 해고
- 에어버스, 25년 인도 전년비 7% 증가한 820대 목표



Weekly Keyword

악재와 호재 속

정부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세 부과는 악재이지만, 여전히 기회도 상존. USTR이 중국 선사 및 제조 선박에 대한 수수료 조치를 제안함. 한국 조선소로의 상선 발주 집중 기대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

[악재와 호재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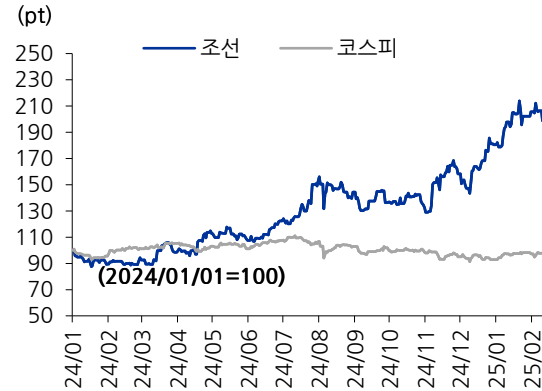
- 조선 업종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구간을 통과 중. 악재는 정부의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28~38%) 부과 결정. 호재는 미국의 중국 조선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고, 본격적인 LNG 수출 프로젝트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상선 수주 관점에서 보면 올해 한국 조선소로 발주가 다소 집중되는 모습이나, 중국 조선소 발주 또한 이어지는 중. 지난 주 이슈화된 미국의 USTR의 중국 선사 및 제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검토가 현실화된다면, 컨테이너선을 비롯한 상선 수주가 한국에 더욱 우호적인 흐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함

Key Chart: USTR 301조 조치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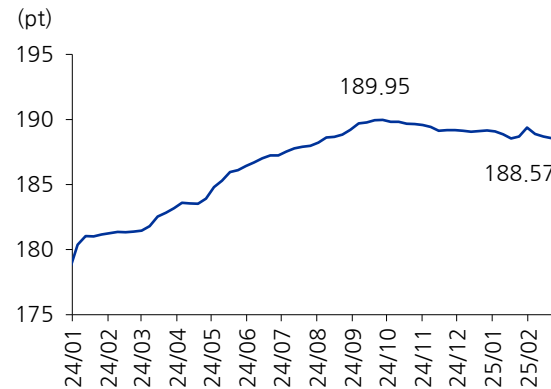
내용	구분
중국 선사 수수료 부과	중국 선사 선박 미국 항구 입항 시 선박 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선박 용적물 1t 당 최대 1,000달러 수수료 부과
중국 제조 선박 보유 해운사 수수료 부과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달러 수수료 부과. 선사의 중국산 선박 비중 50% 이상인 경우 미국 항구 기항 시마다 100만달러 부과. 중국산 선박 비중 26~49%의 경우 7만달러, 25% 이하인 경우 50만 달러(1척 이상 보유). 중국 조선소 발주 비율에 따라라도 차등 적용. 50% 이상 100만달러, 26%~49% 75만 달러, 25% 이하 50만 달러
미국 화물 미국 선박 운송 촉진 위한 제한 조치	1단계: 시행 직후/미국산 제품 최소 1% 미국 국적 선박 통해 수출 2단계: 시행 후 2년/미국산 제품 최소 3%는 미국 국적 선박 통해 수출 3단계: 시행 후 3년/미국산 제품 최소 5%는 미국 국적 선박 통해 수출, 최소 3%는 미국산 선박 4단계: 시행 후 7년/미국산 제품 최소 15%는 미국 국적 선박 통해 수출, 최소 5%는 미국산 선박

자료: USTR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조선 주요 뉴스(02/17~02/23)

[상선/해양]

- 한화오션 에버그린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 수주
- HD현대, 앙골라 Sonagol 수에즈막스 탱커 2척 수주
- 佛 CMA CGM 중국에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 MSC, Zhousan 21.7k TEU LNG 추진 컨테이너선 4척 발주
- 머스크 중국 조선소에 15k TEU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준비
- 오만 아사드쉬핑 30척 발주 전망, 韓 조선사 수혜 예상
- 방글라데시,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추진. HD현대 등 물망

[특수선]

- KDDX 사업 오는 3월 17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현대·한화, 美 7함대 소속 군수지원함 1척 MRO 수주 격돌
- 한화오션 美 필리핀조선소 인수 계열사 주식 추가 취득
- 한화 필리핀조선소, 美 함정 사업 자격 획득 추진
- HD현대중공업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 검토
- 폴란드 국방차관 伊 방문. 오르카 프로젝트 실사 본격화

[기타]

- 중국산 후판 최대 38% 잠정관세 부과 결정
- 삼성중공업, 공기저항 줄인 컨테이너운반선 첫 인도
-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 전년비 4.1% 증가 예상

[글로벌]

- USTR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 관련 수수료 부과 추진
- 미국 Plaquemines LNG CAPA 증설 추가 승인
-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
- CSSC-CSIC 합병 공룡 조선소 출범. 조선 굴기 본격화
- 중국 Hengli Heavy Industry, 일본에서 벌커 2척 수주